

2024. 8. 31.(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30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동물원장

권수완

02-500-7002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02-500-7702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http://grandpark.seoul.go.kr/>

## 서울대공원, 국립생태원·시흥시와 함께 시흥시 옥구공원에 멸종위기 금개구리 300수 방사

- 2년 연속 멸종위기 야생생물II급 금개구리 400수 이상 인공증식에 성공한 기관은 국내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유일
-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시흥시 옥구공원에 300마리 방사 결정
- 방사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존률, 성장률, 복원개체의 이동과 확산 연구 수행 예정
- 서울대공원은 그간 익힌 사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 서식지를 발굴하여 원종을 보호하고 다량 증식, 방사로 금개구리 보전 활동 지속

서울대공원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국립생태원 공동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II급 금개구리 300수를 방사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금개구리는 국내에 주로 서식하는 토종종으로서 영명 또한 Seoul pond frog이며 과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했지만 각종 개발, 농경지 감소, 농약과 비료의 사용, 수질오염, 외래종

(황소개구리) 침입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금개구리는 하루 평균 10m 이내로 이동거리가 짧고 행동권 면적도 720m<sup>2</sup> 정도로 좁아서 서식지 훼손과 파괴에 무척 취약하다. 이에 환경부는 1988년부터 금개구리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서울대공원은 2016년에 구로구 궁동 습지공원에 100마리를 방사하는 등 금개구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2년·'23년 연속으로 400수 이상의 금개구리 인공증식에 성공하였다. 2년 연속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금개구리 400수 이상 인공증식에 성공한 기관은 국내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유일하다. '23년에는 동물원 종보전센터 내 자연과 유사한 금개구리 서식지를 조성하여 금개구리가 자연스럽게 먹이활동 및 동면을 취하도록 서식지를 운영하고 있다.
- 금개구리 방사대상지인 옥구공원은 시흥시가 관리하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도심공원으로서 2000년 서해안 매립지 한가운데 솟아있는 옥구도에 조성된 공원이다.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서식환경, 위협요인, 서식 가능성, 관리용이성, 개선 비용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방사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방사 허가 및 시흥시의 방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사지로 결정되었다.
- 금개구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태연구를 위하여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방사 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 개체 중 30mm이상의 일부 개체에는 개별 식별 장치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생존률, 성장률, 복원

개체의 이동과 확산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 파괴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금개구리 서식지 및 개체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대공원 최홍연 원장은 “그간 축적된 서울대공원의 금개구리 인공 증식사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식지에서 소멸되고 있는 금개구리를 증식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보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지구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군 중 40%가 양서류이며, 양서류는 생태계 먹이사슬 중간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고유 멸종 위기 양서류 보전 활동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토종동물 번식, 보전 활동 사진 〉



서울대공원 금개구리



서울대공원 금개구리



인공증식 금개구리



인공증식 금개구리



양서류 특화 증식장(야외시설)



양서류 특화 증식장(야외시설)